



레바논 격파 “동국아 부탁해!”

내일 새벽 2시30분 브라질 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6차전
 이근호·이청용·김보경 삼각편대와 함께 공격 선봉 나서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 현대)이 레바논과의 일전에서 공격 선봉에 선다. 최강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5일 새벽 2시 30분(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에서 이동국을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내보내기로 했다. 중동 국가에 강한 면모를 보인 이동국은 레바논의 노골적 밀집수비를 뚫고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적임자로 낙점됐다. 최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3명을 포진해 허리를 두텁게 하는 4-2-3-1 전형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동국에게 화력을 보낼 2선 공격진에는 이근호(상주 상무), 이청용(볼턴), 김보경(카디프시티)이 나선다.

이동국과 함께 ‘중동 킬러’로 불리는 이근호는 왼쪽 날개 공격수를 맡아 공간 침투, 돌파, 크로스로 레바논의 골문을 노린다. 테크니션 이청용은 오른쪽 날개 공격수로 이근호와 자리를 수시로 바꿔가며 레바논 수비진을 교란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보경은 최전방 공격수 아래에서 세로 스트라이커처럼 공격 성향을 발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한다. 그는 대표팀에서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으나 이번에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이번에 소집되지 않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백을 메운다. 공수를 연결할 더블 볼란테로는 베테랑 김남일(인천 유나이티드)과 신에 이명주(포항 스틸러스)가 짝을 이룬다. 김남일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3년만에 대표팀에 복귀해 포백 수비라인을 보호하고 전방에 불을เบิก할 중책을 맡았다. 포항의 K리그 클래식 상층세를 이끌고 있는 이명주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른다. 김남

일, 공격진과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추며 잠재력을 꺼내보일 준비를 마쳤다. 포백라인을 지휘하는 센터백에는 베테랑 광태휘(알사범), 정인환(전북 현대)이 버틴다. 전·후방을 오가며 공격과 수비에 힘을 보낼 좌우 풀백에는 김치우(FC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골키퍼 장갑은 부동의 수문장 정성룡(수원 삼성)이 끼기로 했다. 김치우는 전역에서 제외된 기성용 대신 세트피스 키퍼를 맡아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할 예정이다. 광태휘는 최고참 김남일이 있음에도 그동안 해오던 대로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에 맞선 레바논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수 모하마드 하이다르, 하산 마룩, 오니카가 스트리톱으로 출격한다. 이들은 특별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두지 않고 자유롭



게 자리를 바꿔가며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압바스 아트위는 공격형 미드필더, 모하메드 사마스, 하이담 파우르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는다. 좌우 풀백에는 알리드 이스마일, 모하메드 자인타한, 중앙 수비수에는 유세프 모하마드, 빌랄 나자린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키퍼 장갑은 압바스 하산이 꼴피로 나선다. 한국은 최종예선 A조에서 승점 10을 쌓아 한 경기를 더 치른 우즈베키스탄(11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레바논을 이기면 이달 이어지는 우즈베키스탄, 이란과의 7, 8차전(최종전)을 앞두고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조 2위 확보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레바논은 승점 4로 최하위로 처져 이번에 한국을 반드시 꺾어야 본선 진출의 희망을 이룰 수 있다. 한편 한국이 상·하의, 양말까지 모두 하얀 유니폼을 착용하고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에 들어간다. 레바논은 빨간 상·하의, 양말을 착용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은 한국이 빨간 유니폼을 입고 선전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고 빨간 유니폼을 못 입게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유니폼 색상 선택은 홈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 연합뉴스

이: 특&Talk

KIA의 우승... 덕아웃에선 2009년엔 “할 수 있다” 올해는 “글쎄요”

2009년 가을 KIA의 덕아웃은 이상했다. 누구 하나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비장을 넘어 묘한 여유가 보였다. 당시 호랑이 군단을 이끌고 있던 조병현 감독도 “우주의 기운이 KIA를 감싸고 있다”는 엉뚱한 말로 선수들을 유혹했다. 덕아웃에는 달콤한 최면이 걸렸다. 한국시리즈 7차전의 덕아웃 분위기도 그랬다. 팬들의 마음을 잔뜩 졸여냈던 선수들은 의외로 침착했다. 아니 질 것이라

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야신’ 김성근 감독과 야구 기계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앞뒤로 야구 잘하는 SK가 아니었던가. 안방에서 아슬아슬 2승을 챙기며 기세를 올렸던 KIA는 SK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하며 원정에 섰다. 그리고 1승1패를 주고 받으며 끝간 7차전, KIA 선발 구름슨이 2차전에 이어 또 박정권에게 홈런을 맞았다. SK의 한방으로 시작된 경기는 6회초 1-5까지 벌어졌다. 한국시리즈에서의 4점은 크게 보였다.

그라운드 밖에서는 SK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준비해두었던 축하 샴페인과 SK의 우승 기념 모자 와 티셔츠를 옮기는 손길이 부지런했다. 멀어지는 것 같은 승리에서 나지완의 투런이 터졌다. 한국시리즈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던 나지완의 투런에 이어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막내 안치홍도 한 방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그리고 이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역사에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남을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 터졌다. 우승이었다. 거친 공세가 이어질수록, 위기가 올수록

KIA 선수들은 독이 올랐다. 주변의 시선에 상관없이 선수단 스스로 자신들을 믿었다. 김중국·서재용 등 베테랑은 기꺼이 SK를 자극하는 악역을 자처하며 선수들을 한데 모았다. 2013년 봄 KIA의 덕아웃도 이상했다. 시작과 함께 터진 화려한 방망이는 V11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한 봄은 한 달 만에 끝이 났다. 선동열 감독이 부상병들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우선 목표였던 5할 승률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다. 7할의 고공행진을 하던 KIA의 승률은 주말 LG전

씩씩이 3연패와 함께 0.511로 뚝 떨어졌다. 순위도 1위에서 5위로 곤두박질쳤다. 2009년 가을을 장식했던 “할 수 있다”는 말은 2013년 봄 “잘 모르겠다”가 됐다. 야구는 9회 2사부터라는 말이 있다. 펜히 있는 얘기는 아니다. 2일 KIA의 LG전 악몽 같은 패배도 9회 2사에서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승부, 팬들이 원하는 6월은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불타오르는 화려한 여름일 것이다. 그 어떤 패배에도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을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홈 팬들에
 명품가방 쏜다
 흥 3경기 경품 증정

광주 FC가 홈팬들에게 명품가방을 쏜다. 광주 FC가 6월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흥 3경기(6·9·30일)에서 ‘유노윤호 백팩’으로 유명한 빌로밀로 가방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출신 디자인인 빌로밀로 고영대 대표(36)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고 대표는 “광주가 강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후원하게 됐다”며 “비싼가격에 구입을 망설였던 지역 여성축구팬들에게 가방도 선물하고, 광주의 6월 흥경기전에도 응원하겠다. 지역의 축구발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이 밖에도 홈팬들을 위해 TV, 청스기, 선봉기, 중흥 골드스파이클 등 여름맞이 경품을 준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김진우

위기 탈출 특명

프로야구 전망대

KIA, 롯데·넥센 원정 6연전... 연패 사슬끊기 시험대 올라

‘선동열호’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총격의 3연패로 휴식기 첫 일정을 소화한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에 나섰다. 험난한 일정이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3위 롯데 자이언츠와 꾸준히 불타고 있는 1위 넥센 히어로즈가 5위로 추락한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다. 팀 내부 상황도 위기다. 부상 릴레이로 외야는 위기의 땅이 됐다. 부상에서 100% 회복되지 않은 김주찬이 스타팅 멤버로 나서는 것은 타선 특히 외야의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준다. 끝이 보이지 않은 이용규의 부진 속에 외야의 새바람 신종길이 아직 재활군에 있고, 부활 기미를 보인 김원섭마저 2일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로 이탈하면서 한 달 가량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4번타자 나지완이 LG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불안불안한 수비는 승부에 영향을 미쳤다. 김원섭을 대신해 이준호를 투입했지만 외야는 여전히 위태롭다. 마운드도 이종교다. 윤석민이 조금씩 위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더딘 흐름이다. 김진우·서재용도 극과 극의 피치를 선보이고 있는데다 소사도 어렵게 어렵게 이닝을 끌어가고 있다. 에이스 청호를 차치한 양현종 만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불운에 몰고 있다. 5월 3일 넥센전에서 8이닝 1실점의 완투패를 기록했던 양현종은 곧은 각오로 출격한 지난 2일 LG와의 경기에서도 마무리 엔

서니가 4점도 지키지 못하는 졸전을 펼치며 고개를 숙였다. 물먹은 방망이와 선발과 불펜의 엇박자로 ‘우승후보’는 부끄러운 명칭이 되고 말았다. 벤치의 전술 부재까지 겹치면서 KIA는 LG전에서 패배로 향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여줬다. 선수단이 사활까지 하고 나섰던 2일 경기는 특히 치명적이었다. 8회 출격했던 마무리 앤서니가 4-0으로 앞선 9회 시작과 함께 3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는 등 배터리가 허둥지둥 대는 동안 벤치는 이렇다할 힘도 쓰지 못하고 동점이 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연장 10회의 승부에서도 KIA는 무기력했다. 2사 1루. 대기 타석에 있던 LG 마무리 봉

중근 대신 선택했던 문선재와의 승부에서 박경태가 역전 2루타를 얻어맞으면서 그라운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10회말 선두타자 김선빈이 내야 안타로 출루했지만 김주찬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투아웃. 나지완·이범호가 연달아 볼넷으로 출루하면 마지막 볼넷을 살렸지만 경험부족의 윤원주가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투수 대주자, 내야수 포수, 투수 타자가 등장한 LG에 역전패를 당했다. 벤치에 있던 안치홍을 나지완의 대주자로 투입하면서 마지막 대타 카드도 활용하지 못했다. 임정우가 대주자, 내야수 문선재가 포수로 변신하는 등 LG가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지만 KIA는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

프로야구 중진순위 (6월 3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45	29	16	0	0.644	0.0
1 넥센	45	29	16	0	0.644	0.0
3 롯데	46	23	21	2	0.523	5.5
4 두산	47	24	22	1	0.522	5.5
5 KIA	46	23	22	1	0.511	6.0
6 LG	47	24	23	0	0.511	6.0
7 SK	43	19	23	1	0.452	8.5
8 NC	47	17	28	2	0.378	12.0
9 한화	48	15	32	1	0.319	15.0

워 줄 전략을 내어놓지 못하며 4점을 지키지 못했다. 허무한 역전패로 사활결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KIA는 긴 연패의 위기에 몰렸다. 가장 먼저 선발로 나서게 되는 김진우 팔과 친정팀을 상대로 첫 승부에 나서는 북병 김주찬의 발 그리고 구슬을 깨어갈 벤치의 머리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